

규범적 자연주의와 도구적 합리성^{*†}

천 현 득[‡]

방법론이 규범적 힘을 상실해 버렸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 논문은 방법론을 자연화하되 여전히 규범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규범적 자연주의를 검토한다. 특히, 도구적 합리성과 관련지어 규범적 자연주의를 논의하고 그들의 관계를 탐구한다. 자연주의적 방법론은 방법론적 규칙을 도구론적으로 파악하고, 방법의 건전성을 목표 실현의 효율성에 의해 평가하기 때문에, 도구적 합리성에 크게 의존한다. 도구적 합리성의 성립을 위해서라도 비도구적인 인식 합리성이 요구된다는 비판에 일정부분 공감하면서도, 그러한 인식 합리성의 영역이 넓지 않으며 방법론의 자연주의적 성격을 흐리게 하지도 않는다고 논증한다. 또한 귀납의 입증도 문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규범적 자연주의를 재정식화하고, 자연화의 핵심인 목표 실현의 효율성이 동시에 규범성의 원천임을 보인다.

【주요어】 방법, 방법론적 규칙, 도구적 합리성, 라우든, 규범적 자연주의

1. 여는 글

방법론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Laudan, 1987: 19). 과학자가 어떤 방법이나 절차에 따라 탐구를 수행하고 있는지 또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탐구가 방법론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거에 누렸던 높

* 접수완료: 2006. 11. 19 / 심사 및 수정완료: 2006. 12. 20.

† 이 논문은 2006년 한국과학철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격려와 자극을 주신 조인래 교수님, 장대익 박사님, 정동욱 선생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발표 당시 논평을 통해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전영삼 박사님과 논의를 보다 선명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서울시 인문학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원받았음을 밝혀둔다.

‡ 서울대학교 대학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은 위상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전통적 인식론자들이 제1철학을 표방하며 인식 규범의 선험성을 전제한 것과 같이, 전통적 과학철학자들은 방법론적 작업이 경험과학의 토대를 제공하면서 스스로 정당화되는 선험적 원리들에 의존한다고 여겼다. 그러나 “역사적 전회” 이후 방법론의 전망은 밝지 않다. 소위 “역사주의자”들은 방법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기껏해야 과학 활동을 기술하는 것이라며, 상대주의적 입장으로 급선회했다.¹⁾ 이제 방법론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과학자들이 사용해왔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을 기술하는 것뿐인가? 처방하고 지침을 주던 방법론은 수명을 다한 것일까?

라우든(Larry Laudan)은 규범적 자연주의를 제안함으로써 위기에 빠진 방법론에 새로운 위상을 부여하고자 했다. 이는 양극단 사이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선험적인 규범이나 합리성 없이도 진보를 의미 있게 만들려는 기획이다. 이 과정에서 합리성의 개념을 도구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특정한 목적에 상대적이고 도구적인 것으로 제한된다. 라우든은 자연주의를 추구하되, 인식론의 규범적이고 비판적 기능은 포기될 수 없으며, “인식론은 규범적 차원을 유지한 채로 자연화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자연주의를 “규범적 자연주의(normative naturalism)”이라고 부른다(1990a: 46).²⁾ 만일 이 기획이 성공적이라면, 침체된 방법론과 규범적 과학철학을 구해내는 한 가지 길을 열어줄 것이다(Hands, 1996: 150).

철학의 선험성과 규범성을 반대하는 과학철학의 자연화 프로그램은 기존의 철학적 논의를 더욱 역동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과학사

1) 파이어아벤트는 방법에 관하여 “무엇이든 좋다”를 선언했고, 쿤은 방법론적 표준이 모호해서 이론 선택에서 제 구실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가치들을 통한 이론 선택과 합리성을 제안했다. 포퍼는 방법론적 규칙을 합리적 선택이 불가능한 일종의 규약으로 받아들였다. 폴라니, 라카토슈, 콰인, 퍼트남, 해킹, 로티 등의 철학자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에서 방법론이 규범적 힘을 상실했다는 데 동의한다.

2) 규범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라우든은 자신의 규범적 자연주의를 콰인(Quine, 1969)의 자연주의와 차별화한다(Laudan, 1990a: 45-46).

와 인지과학, 그리고 사회문화적 분석에 기대어 과학철학의 작업들은 과학의 작업들과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자연주의자들은 어떤 선협적 인식 규범이나 방법론을 거부하고, 행위자의 가치와 목표, 사회적·역사적 맥락 등을 진지하게 고려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도구적 합리성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된 목표를 실현할 수단을 모색하고 수행하는 것이 도구적 합리성이라고 한다면, 도구적 합리성은 과학철학을 자연화하는 기획에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이다(Giere, 1989; Laudan, 1990b).

이 글은 도구적 합리성이라는 렌즈를 통해 규범적 자연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그것이 어떻게 자연주의적이면서 동시에 규범적일 수 있는지 밝힌다. 나는 순수한 도구론이 요청된다는 라우든의 주장을 비판하고, 동시에 순수한 도구론의 실패가 곧 자연주의의 실패라는 비판자의 주장도 거부한다. 도구적 합리성의 성립을 위해서도 인식 합리성이 요청된다는 주장에 일부 공감하되, 넓은 의미의 도구적 합리성을 옹호할 것이다. 순수하게 도구론인가 아닌가의 “양자택일의 문제”에서, 비도구적 합리성이 얼마나 필요한가의 “정도의 문제”로 전환함으로써, 넓은 의미의 도구적 합리성이 규범적 자연주의를 위해 충분함을 보일 것이다.

2. 규범적 자연주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규범적 자연주의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자.³⁾

-
- 3) “규범적 자연주의”라는 용어는 Laudan(1987)에서 최초로 분명하게 제시되지만, 그것의 내용은 『과학과 가치』(1984)에서 이미 등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Laudan(1987)에서 자연주의적 방법론과 자연주의적 가치론에 대해서 언급했고, Laudan(1990a)에서 비판자들의 다양한 비판에 대응하며, 자연주의적 메타방법론과 자연주의적 가치론을 보다 분명한 형태로 정식화한다. Ginev(1993: 330, n. 2)는 그물 모형과 규범적 자연주의 간의 연결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둘은 서로 다른 관점이라고 보는 반면, 나는 『과학과 가치』에서 보이는 그물 모형 안에, 이후 정식화되는 자연주의적 방법론과

규범적 자연주의는 인식론 자체이기 보다는 철학적 지식에 대한 이론이며, 일종의 메타인식론이다. 그것은 어떤 인식 규범이나 방법론적 규칙을 정당한 것으로 수용할 것인지에 관한 이론이다. 그러면서 방법론이 자연세계에 대한 과학이론과 연속적임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또한 철학적 주장은 과학이나 상식, 법 등 우리의 일상적 주장을 평가하는 방식과 똑같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자연화된 인식론의 한 부류이다(Laudan, 1990a: 44-45; 1996: chap. 6). 규범적 자연주의는 자연주의적 메타방법론과 자연주의적 가치론으로 구성된다(Laudan, 1990a). 이 글에서는 방법론의 자연화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자연주의적 메타방법론은 인식론이 규범적인 차원을 유지한 채로 자연화될 수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Laudan, 1990a: 46).

- (i) 인식론의 규범적 규칙은 수단과 목적을 연결하는 가언명령으로 가장 잘 이해된다.
- (ii) 그런 규칙의 건전성은 수단과 목적의 연결에 대한 경험적 주장에 의존한다.
- (iii) 수단-목적 연결의 빈도에 대한 정보가 그 규칙의 옳음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 고려사항이다.
- (iv) 인식적 규범·규칙은 탐구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들에 기초해 있고, 그 규칙들은 과학이론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식체계 안에서 기능한다.
- (v) 자연과학에서 이론 선택을 지도하는 규칙들은, 과학이론이 새로운 증거에 직면하여 변화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새로

가치론의 기본 착상이 담겨있는 것으로 본다. 특히, 거기서 그는 규범과 규칙을 가언명령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따라서 경험적 탐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그러면서도 자연화된 방법론과 인식론이 규범성을 지닐 수 없다는 주장이 근거 없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Sankey(1996)의 견해도 필자와 유사한데, 그는 규범적 자연주의(특히 자연주의적 방법론)를 과학적 합리성에 대한 그물 모형을 떠받치는 메타방법론적 입장으로 평가한다.

- 은 정보에 대응하여 변화하고 진화한다.
- (vi) 그래서 인식적 규칙들은 과학적 지식의 모든 다른 요소들과 똑같이 오류가능하다.

라우든이 제안한 방법론은 어떤 의미에서 자연주의적인가? 방법론적 규칙이나 인식 규범은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명령이되, 어떤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연결하는 경험적인 주장에 의존한다. 즉, 그것은 수단과 목적의 가언명령(hypothetical imperatives)이다. 만일 규칙이나 규범이 수단과 목적의 우연적 연결에 의존하는 것이라면, 규칙의 정당성은 경험적 탐구를 통해서 획득된다. 실제로 수단으로서의 방법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리한지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규범적 자연주의는 방법론을, “자연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여타의 이론들과 연속적”인 것으로 다루고, 또 “과학과 동연적(co-extensive)인 것”으로 다룬다(Laudan, 1990a: 44; 1990b: 315). 인식 규범이나 규칙이 경험과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혹은 경험과학적인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탐구되고 정당화된다는 것은, 그런 규범이나 규칙이 자연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일상 언어를 조금만 반성해보면, 방법이란 무릇 “무엇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다. 좋은 방법이란 어떤 행위자가 추구하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해주는 방법을 말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과학적 방법이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과학의 인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고, 좋은 과학적 방법이란 인지적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해주는 수단이다. 도식적으로 보면, “우리는 M을 해야한다”라는 방법론적 규칙은 “우리의 인지적 목표가 G라면, 우리는 M을 해야한다”라는 문장으로 재해석될 수 있고, 그런 방식으로 가장 잘 이해된다. 예를 들어, “임시방편적 가설을 피하라”는 포퍼의 규칙은, “당신이 매우 모험적인 이론을 개발하기 원한다면, 임시방편적 가설을 피해야한다”는 가언명령으로 이해된다(Laudan, 1987: 24). 규칙을 평가하려면, 과학사의 사례들과 실제 과학현장의 정보들을 통

해서, M이라는 방법이 정말 G라는 목적을 성취하는 데 이바지 했는지, 방법 M을 따르는 경우에 그것의 대안 M'을 따르는 것보다 목표 G를 더 빈번하게 실현하는지 탐구해야 한다. 방법론적 규칙은 과학 이론과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평가되고, 그것은 경험적 지식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바로 경험적 지식의 일부이다(Laudan, 1987: 24). 이것이 방법론의 자연화가 의미하는 바이다.

한편, 라우든은 자연주의적 방법론이 규범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철저히 ‘과학적이고’ 강건하게 ‘기술적인’ 방법론이 규범적 귀결을 가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Laudan, 1987: 25). 방법론을 자연화하면서도 어떻게 “규범적”일 수 있는가? 자연주의적 메타방법론은 방법론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더 좋은지를 충고해줄 수 있다. 목표를 실현할 도구적 효율성에 의해서 방법론은 정당성을 획득하고, 경험과학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처방해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주의적 방법론은 규범적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전통적으로 생각해오던 선험적 의미의 규범(norm)과는 다르다. 전통적 규범은 경험과는 무관하게 이성적이고 선험적인 작업을 통해서 획득된다. 그러나 자연화된 방법론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일종의 지침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규범성을 유지할 수 있다. 한마디로 “정당한 조언”이 규범적 자연주의가 말하는 규범성이다. 다만, 이때의 규범성은 경험적 시험을 통해서 언제라도 폐기가능하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규범성이 뜻하는 바와 차이가 있다. 이것이 불만족스러운가? 라우든의 주장은, 과학철학의 방법론이 적어도 경험과학만큼은 확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3. 과학적 합리성과 도구적 합리성

규범적 자연주의와 도구적 합리성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합리성과 도구적 합리성의 개념부터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통 합리성의 개념은 크게 둘로 구분된다. 하나는 믿음의 합리

성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의 합리성이다. “믿음의 합리성 개념은 믿음이 제시되었을 때, 증거에 비추어 그것을 얼마나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려 하는가와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행위의 합리성은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위자가 얼마나 자신의 믿음에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동기에 따르는지와 관련된다”(홍병선, 1999: 138-139). 믿음의 획득에 관한 합리성을 인식적 합리성으로, 목적 달성을 위한 행위의 합리성은 실천적 합리성으로 부를 수 있다면, 과학적 방법론과 관련된 합리성은 행위의 합리성 혹은 실천적 합리성에 속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정상모, 1998). 방법론은 탐구활동이 어떤 방법이나 전략에 따라 이루어져야하는지에 대한 연구이고, 탐구 전략을 세우고 따르는 과정은 믿음을 형성하는 과정보다는 목표를 실현하는 행위에 가깝기 때문이다.

과학적 합리성을 행위의 합리성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한다면, 합리성에 대한 도구적 관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합리성에 대한] 도구주의란 일반적으로 어떤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최상의 수단을 선택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여기는 입장을 일컫는다. (...) 원칙적으로 도구적인 합리성에서 목적 자체는, 그것이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혹은 제3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목적과 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고려되지 않는 한, 합리적 숙고의 대상이 아니다. 합리성이 문제되는 차원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수단을 숙고해내고 그것을 실행하는 의지에만 관련된다 (장춘익, 2002: 319).

김기현(2004)의 분석도 인용된 장춘익(2002)의 이해와 유사하다. 김기현에 따르면, 행위의 합리성이 주어진 목적과 관계 속에서 평가될 때, 근본적인 목적(unmotivated end)의 설정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평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 도구주의이다. 이에 반해, 비도구주의는 목표의 적절성이 이성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 그러나 도구주의라고 해서 모든 합리성의 평가는 목적-수단과 관련된 평가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도구주의자들은 “여러 상반된 목

적이 주어졌을 때 이들을 어떻게 조화할 것이며, 이들에게 어떤 비중을 부여하고, 또 이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간상의 계획을 세우는 것들이 모두 합리성과 관련된 논의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김기현, 2004: 6). 다만, 가장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논의가 합리성 너머에 있다는 것이다.

규범적 자연주의는 방법론적 규칙을 도구(instrumentality)로서 이해한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따라 탐구를 수행하는 것이 행위자의 목표 실현에 이바지한다면, 그 방법은 정당한 것이 되고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일이 된다. 도구적 합리성 개념은 이미 행위 이론이나 합리성 이론에서 많이 논의되어 왔다. 그들의 관점에 따르면, 한 행위나 믿음은 그것이 우리의 목표를 증진한다고 믿을 근거를 가지는 한, 합리적이다.⁴⁾ 규범적 자연주의에서 새롭다고 할만한 것이 있다면, 과학적 탐구의 규칙(rule)이나 격언(maxim)들도 도구론적 관점에서 적절히 다룰 수 있다고 주장한 데 있다(Laudan, 1990b: 316). 라우든은 인식 정당화가 도구적 합리성의 한 하위종일 뿐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독립적인 인식론적 원리들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거부하였다(Laudan, 1990b: 318-320).⁵⁾ 그의 순수 도구론에 따르면, “좋은 이유는 도구적 이유이다. 다른 종류의 이유는 없다”(Laudan, 1990b: 320). 하지만 정말 그런가? 이제 나는 합리성과 정당화에 대한 도구적 관점을 비판하는 견해를 살펴보고, 방법론을 성공적으로

4) 인식적 합리성이나 규범성을 도구론적으로 이해하는 관점은 많은 지지자를 거느린다. Brown, Fuller, Gibson, Kitcher, Kornblith, Maffie, Quine 등이 이에 속한다(Siegel, 1996). 특히, 과학의 방법론적 규칙이 목표 실현을 통해 정당화된다는 관점 역시 과학철학에서 많은 옹호자를 모으고 있다. 이 글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Laudan 뿐만 아니라, Popper, Hempel, Goldman, Rescher, Newton-Smith, Giere 등이 있다(Resnik, 1993).

5) 과학철학의 자연화를 주장하는 기어리도 자율적인 인식론적 원리들의 영역이 있다는 주장을 거부하면서 도구적 합리성의 개념을 옹호한다(Giere, 1989: 377). 그는 어떤 수단이 바라는 목표를 성취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믿어질 뿐 아니라, 실제로 이바지하는 경우를 “객관적인 의미의 도구적 합리성”으로 부르고, 이런 “객관적인 도구적 합리성”이 자연주의자들에게 규범적 주장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본다(Giere, 1989: 380).

자연화하기 위해서 그런 도구적 관점을 넘어서는 인식 합리성의 건지가 요구되는지 검토해보겠다.

4. 도구적 합리성에 대한 비판⁶⁾

- 6) 이 글에서 도구적 합리성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을 다루지는 않는다. 이 절의 주된 목적은 자연주의를 둘러싼 도구적 합리성 논쟁의 함의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도구적 합리성에 대한 반론들 중에서 두 가지만을 고려해보자.

이좌용(1998)은 합리적 결정이론이 전제하는 도구적 합리성의 한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묻는다. “선택가능한 행위들이 초래할 것으로 기대되는 결과, 즉 인과적 효용이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할 효용의 전부인가?” 그는 죄수의 딜레마와 뉴콤(Newcomb)의 문제를 해설하면서, 행동의 결단적 가치는 오로지 인과적 효용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여기에는 인과적이지 않은 증거적 연관이 행위의 기댓값을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또한 지네 게임의 문제를 고찰하면서, 합리성은 어떤 행위를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사회적 터전과 그것의 실천적 역사에 의존함을 보이려 한다. 그는 노직(R. Nozick)을 따라, “인과적 효용, 증거적 효용, 그리고 상징적 효용이 모두 어우러져 있는 효용도에 의해 한 행위의 기대효용은 산출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합리적 선택이론의 합리성을 연구한 정준표(2003)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합리적 선택이론에서의 합리성의 개념은 도구적 합리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합리적 선택이론에서의 합리성은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을 찾는 것과 관련되는 것이다.” 그런데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말하는 소위 “협회의 합리성”은 물질적이고 이기적인 자기이익(material selfish self-interest)의 추구만을 합리적이라고 가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좌용의 비판은 바로 이 지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택이론이 가정하고 있는 도구적 합리성은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자기이익과 그것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는 인과적 효용만을 계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도구적 합리성의 태생적 한계인가? 좁게 해석된 도구적 합리성이 인간의 이기적 욕구와 인과적 효용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는 지적은 올바른 것일 수 있다. 이것은 계산하기 손쉬운 형태의 효용만을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도구적 합리성의 실천적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을 위해 현존하는 최선의 수단을 선택해서 행하고자하는 도구적 합리성의 개념 자체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비쳐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좌용이 언급한 증거적 효용, 상징적 효용 등도 결국 효용이며, 행위자가 달성하고자

자연주의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자인 시겔은 합리성에 대한 도구론적 관점을 규범적 자연주의의 핵심으로 파악하고, 이런 관점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한다(Siegel, 1990: 298-299). 도구적 합리성에 대한 시겔의 비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방법론적 규칙은 도구적 효능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인식적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이고(Siegel, 1990: 301-302), 둘째는 도구적 효율성이 합리적 행위를 위한 필요조건이 아니거나, 필요조건인 경우에도 합리성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 속에서는 적은 부분만을 차지한다는 것이다(Siegel, 1990: 303; 1996). 첫 번째 비판의 핵심은 방법론적 규칙을 가언명령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이다. 이 글에서는, 규칙을 목표와 연결된 가언명령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전제하고, 두 번째 비판에 초점을 맞춘다.⁷⁾

시겔에 따르면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i) 수단이 목표에 대해 도구적으로 효과적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ii) 효율성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정당해야 하며, (iii) 목표 자체가 정당해야 한다. 그리고 세 요소를 모두 만족해야 완전한 의미에서 합리적이다. 그런데 라우든이 전제하는 도구적 합리성은 첫 번째 요소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판은 지나치다. 라우든에 따르면, “탐구 과정은 우리의 목표를 실현할 것으로 믿을 근거를 가지는 한, 그 탐구 수행은 합리적이다”(Laudan, 1986: 349). 그는 단지 도구적인 효능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적절한 근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그렇다면 목표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만일 목표의 정당성이라는 것이 “어떤 목표를 추구해야 할 정당한 이유”로서 이해된다면,

하는 일종의 목표이고, 그런 포괄적인 목표에 대한 효율적 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정확히 도구적 합리성의 개념으로 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정이론이나 합리적 선택이론의 물질적, 인과적 편향이 도구적 합리성 자체의 개념적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 7) 첫 번째 문제가 손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논증이 필요하다. 천현득(2006: 3장)은 시겔의 첫 번째 비판이 규범적 자연주의의 가능성을 위협하지 못함을 논증한다. 중요한 것은, 논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판의 초점이 첫 번째 문제에서 두 번째 문제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라우든의 도구적 관점이 이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분명치 않다. 만일 이것이 쟁점으로 부각된다면, 전선은 도구주의와 비도구주의의 전면전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라우든이 세 번째 요소를 방치했던 것은 아니다. 그에게 “목표의 정당성”은 경쟁하는 목표들 사이에서 어느 하나를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선호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자연주의적 가치론과 그물 모형은 목표 선택의 합리성이라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룬다. 라우든은 목표들이 실현불가능하거나 과학자 공동체의 공유된 이론 및 실천이 함축하는 암묵적 가치들과 갈등하는 경우에, 목표들이 합리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Laudan, 1984). 물론 이것이 비도구주의자가 바라는 방식의 정당화는 아니지만, 도구주의자로서 할 수 있는 한 성의있게 과학적 합리성의 여러 요소들을 균형감 있게 다룬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시겔의 비판 중에는 중요한 지적이 담겨있는데, (ii)와 (iii)의 조건을 덧붙임으로서 합리성의 도구적 성격이 열린다는 것이다. 어떤 방법이 목표 실현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믿을 적절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근거는 도구성이 아니라 증거이다(Siegel, 1990: 305). 목표와 수단을 연결하는 경험적 주장이 참이라는 것을 지지하는 증거는 목표/수단의 분석틀로 포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목표 자체의 정당성 문제는 그 목표가 어떤 상위의 목표와 도구적 관계로 관련되어 있지 않은 한, 도구적 분석틀을 벗어난다. 시겔의 의도는 도구적 합리성과 구별되면서 그것으로 환원되지 않는, 목표/수단 분석틀로 포착되지 않는 인식 합리성이 존재함을 드러내는 것이다(Siegel, 1990: 301-2).⁸⁾ 이때, 핵심적인 주장

8) 하지만 시겔(1990)의 예시는 적절하지 못했다. 그에 따르면, “방법론적 규칙들의 정당화는 유관한 인식적 원리들에 따라서 진행된다. (...) 원리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방법론적 규칙에 따라 수행된 실험이 참된(혹은 타당한) 결과들로 이끌 확률을 극대화하는 한, 그 방법론적 규칙은 정당화된다”(Siegel, 1990: 301). 그러나, 방법론적 규칙이 참된 결과를 산출할 확률을 극대화하는 한 정당화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목표/수단의 분석을 통한 도구적 합리성과 무엇이 다른가? 참된 결과를 낼 개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과 관련하여 방법론적 규칙이 정당화되는 것이라면, 그 규칙은 “참된

은 수단이 목표에 대해 효율적이라고 믿을 근거가 바로 인식적 개념인 증거라는 것이다. 라우든은 어떤 수단이 특정한 목표를 증진한다는 판단을 위해서 “좋은 이유”가 요구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도구적 이유만이 유일하게 좋은 이유라고 주장한다(Laudan, 1990b: 319-320). 과연 증거와 [수단이 어떤 목표를 위해 효율적이라는] 주장 사이의 관계는 순수하게 비도구적이고 인식적인가, 아니면 도구적인 도식으로 포착이 가능한가?

시겔(1996)은 바로 이 대목을 파고들어, 도구적 합리성을 정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비도구적인 합리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하며, 도구적 이유만이 좋은 이유라는 주장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물론 그가 방법론의 자연화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수단의 도구적 효능이나 도구적 합리성에 대한 주장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경험적 증거에 호소해야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한다.⁹⁾ 수단 M이 목표 G에 대해 효과적임을 증거 E가 제안하는 경우에, 목표 G에 대한 방법 M의 도구적 효능은 증거 E에 의해서 확립된다는 것이다. 그가 문제 삼는 지점은 바로 증거 E와 “방법 M이 목표 G에 대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하, 효율성 주장 C) 사이의 관계이다. C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증거 E가 믿음 C를 정당화하거나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증거를 구성해야 한다(Siegel, 1996: S119). 이때 C와 E의 관계는 전형적인 비도구적 관계로 보이며, 이론과 증거에 대한 입증 관계나 증거적 관계로 생각된다. 우리가 M이 G에 대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효율성에 대한 증거에 호소해야 하고, 그렇다면 증거와 앎 사이에 인식적 관계가 전제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어떤 방법론적 규칙의 정당성에 관련된 합리성이 비

결과를 산출할 확률을 극대화하는” 인식적 목표를 위한 효율적인 수단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시겔의 예는 오히려 목표/수단 분석이 인식 정당화를 위한 분석들을 제공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Laudan, 1990b: 317).

- 9) 시겔은 과학철학의 자연화에 대한 자신의 비판(Siegel, 1989; 1990)에 대한 기여리(Giere, 1989)와 라우든(Laudan, 1990b)의 반론에 답하면서, 어떤 수단의 도구적 합리성에 대한 주장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경험적 증거에 호소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Siegel, 1996: S.118, S.112-3).

도구적인 인식 합리성이려면, 도구적 합리성을 전제하는 라우든의 견해를 큰 상처를 받을 것이다.¹⁰⁾

우선, 증거와 효율성 주장 사이에 성립하는 것으로 보이는 인식적 관계에 대해, 라우든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보자. 라우든은 주장의 참됨을 위한 증거와 신뢰수준 99%를 위한 증거, 또 신뢰수준 95%를 위한 증거는 서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도대체 비-도구적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한다(Laudan, 1990b: 320). 예컨대, 어떤 진술의 경험적 적합성을 위한 증거와 그 진술의 참을 위한 증거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행위자들이 공약(commit)하는 주장의 확실성 정도가 서로 다르다면, 각각은 서로 다른 증거들에 기대게 될 것이다. 즉, 증거는 주장의 확실성 정도에 대해 상대적일 수 있다. 이로부터 라우든은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x가 y를 위한 증거임을 확인하는 것은, x가 (진리라는) 목표에 이바지하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y를 위한 증거로서 선별된 것임을 결정하도록 요구한다. 좋은 이유들은 도구적 이유들이다. 다른 종류의 이유는 없다”(Laudan, 1990b: 320).

하지만 주장의 확실성 정도에 대한 증거의 상대성이 증거가 도구적 이유라는 것을 보여주는가? 어떤 증거가 도구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증거가 주장의 ‘참됨’이나 ‘95% 신뢰할 만함’을 실현하기 위한

10) 합리성에 대한 일반적 논의에서도 유사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홍병선(1999)은 믿음 획득과 관련된 인식적 합리성과 목적 달성을 위한 행위의 합리성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물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선 목적 달성의 합리성이란 행위자가 설정한 목적이 그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것이라는 믿음에 따른 합리성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달성하는데 그가 따르는 행위의 합리성도 결국은 어떤 특정한 행위가 목적 달성에 가능한 최선이라는 믿음이 과연 객관적인 근거에 따른 것인지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행위의 합리성은 마땅히 믿음의 합리성을 전제로 해서 성립될 것이다”(홍병선, 1999: 139). 이는 시결이 지적하는 바와 유사하다. 도구적 합리성에는 특정 행위가 목표 달성에 효율적이라는 믿음이 필요한데, 이것은 믿음의 합리성 혹은 인식 합리성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올바른 표현인가? 라우든은 증거를 찾고 채택하고 제공하는 것(giving of evidence)과 일단 증거가 주어졌을 때 그것의 인식적 힘(epistemic forcefulness of the evidence given)을 구분하지 않았다(Siegel, 1996: S122).¹¹⁾ 도구적 합리성이 과학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도구적 합리성이 과학적 합리성 전체를 포괄하는 것도 아니다. 라우든이 보여준 것은 증거를 찾고 선별하는 작업이 진술의 확실성이라는 목표와 관련하여 상대적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증거의 모색은 도구적인 합리성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어떠한 증거가 주어지면, 그런 증거가 특정한 효율성 주장을 얼마만큼 지지하는지는 도구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결국 시결이 제기한 증거적 관계는 목표/수단의 분석틀로 포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5. 인식 합리성에 대한 도구적 관점?

소위 인식 합리성도 도구적 관점으로 파악할 수는 없을까? 인식 합리성에 대한 도구적 관점(이하 인식 도구론)은 인식 합리성이 어떤 인식적 목표에 봉사하는 도구적 합리성의 한 종일 뿐이라는 입장을 취한다(Kelly, 2003: 612). 이는 도구적 이유 외에 다른 좋은 이유는 없다고 천명한 라우든의 관점과 일치한다. 인식 합리성이 도구적 합리성으로 환원될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함축을 가진다. 만일 환원이 가능하다면, 인식 합리성조차도 도구론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자연주의적 작업을 보다 강력한 형태로 진행시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반대로 도구적 합리성과 별개인 인식 합리성의 고유성이 인

11) 켈리는 이와 유사한 구분을 시도하면서, “증거 수집과 실험의 활동에 관여하는 이성(은 도구적 이성이지만, 일단 실험이 수행된 후에 어떤 믿음이 합리적이게 되는 것은 더 이상 도구적 합리성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인식적 합리성의 문제라고 말한다(Kelly, 2003: 635).

정되고, 또 그 영역이 상당히 넓다고 한다면, 자연주의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 절에서는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인식 합리성에 대한 도구적 관점의 건전성을 검토한다.

인식 도구론에 따르면, 유관한 목표 없이는 인식 합리성도 없다. 그래서 합리성은 정언적이 아니라 가언적이다. 그러나 반도구론자는 목표를 서로 달리하는 행위자들이 동일한 인식적 이유(epistemic reason)나 믿을 이유(reason for belief)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인식적 이유의 상호주관성” 논증이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인지적 목표를 가지는 사람들도 지금까지 관찰된 에메랄드가 녹색이라는 것을 안다면, 다음번 관찰될 에메랄드가 녹색이라고 믿을 강한 이유를 가진다. 이는 인식 합리성이 목표와 무관함을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인식 도구론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식적 이유를 정언적 이유로 다룰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근거는 우리 모두가 “참을 믿음”이나 “거짓보다는 참을 소유함”과 같은 유관한 인지적 목표를 공통적으로 지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비도구론자는, 인지적 목표가 보편적이라면 왜 그것이 단순히 믿을 이유가 아니라 목표에 상대적인 이유인지 의아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켈리는 보편적인 목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Kelly, 2003: 622-3). 믿음의 주체로서 개인들은 저마다 구체적이고 특정한 인지적 목표들을 가질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목표를 가지지 않고서도, 혹은 어떤 명제를 믿는 것이 목표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그 명제들을 믿을 인식적 이유들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목표의 차이나 목표의 존재 여부는 인식적 이유의 차이와 무관하다.

인식 도구론자는 “인식적 이성의 상호주관성” 논증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 에메랄드의 예로 돌아가 보자. 비도구론자는 목표에 무관하게 다음번 관찰된 에메랄드가 녹색이라고 믿을 강한 증거나 이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증거는 분명히 다음번 에메랄드가 녹색이라는 믿음을 지지한다. 하지만 도구론자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개인마다 목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증거가 지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 증진되는 어떠한 목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공유된 증거가 [다음번 에메랄드가 녹색이라고] 믿을 이유를 제공해준다(Leite, 2005). 이 대목에서 레이트는 켈리가 인식적 합리성을 말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믿을 이유(reason for belief)를 뭉뚱그렸다고 비판한다. 하나는 증거에 대한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자의 인식 합리성에 대한 믿음이다. 전자가 주어진 이유나 증거가 명제를 지지하는지를 묻는다면, 후자는 그런 정보를 가진 행위자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관한 믿음이다. 인식 합리성의 문제는 곧 “행위자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다음번 에메랄드의 색깔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을 상상해보자. 만일 그가 과거에 관찰된 에메랄드가 모두 녹색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그가 “다음번 에메랄드는 녹색일 것이다”라는 믿음을 산출하지 않는다면, 비합리적인가? 레이트는 확실히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이 사례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과거 에메랄드들의 색깔로부터 다음 에메랄드의 색깔을 추론하는 것은 증거가 명제를 지지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이다. 그러나 이것이 합리성의 문제는 아니다. 행위자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와 관련된 합리성의 문제는 그 행위자가 에메랄드의 색깔에 관심을 가질 때에만 비로소 등장한다. 그러므로 인식 합리성은 목표나 관심에 상대적이다. 증거가 존재하지만 어떤 명제를 믿는 것이 행위자의 목표를 증진하지 않는다면, 그 명제를 믿을 이유는 가지지 않는다(Leite, 2005).

레이트의 제안처럼, 증거의 문제와 합리성의 문제를 구분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 아니다. 증거의 문제와 합리성의 문제를 구분하는 것은 증거를 가지고도 믿음을 형성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만 적용된다. 자연화된 방법론의 경우, 주어진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론적 규칙을 발견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어떤 규칙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믿음을 형성해야한다. 일단 그런 믿음의 형성 과정이 합리적인지는 결국 증거가 믿음을 잘 지지하는지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레이트의 구분 전략은 방법론의 자연화 기획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식 합리성이 증거에 기반을 두어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

고 할 때, 다음의 세 단계를 거치게 된다. 첫 번째 단계는 행위자의 관심이나 목표와 관련하여 증거를 찾고 선별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는 증거에 직면했을 때 믿음을 형성할지 하지 않을지가 결정되는 과정이다. 세 번째는 증거를 통해 믿음을 형성하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이 증거에 적절하게 기반을 두었는지 묻는 과정이다. 첫 번째 과정은 도구적인 과정이다. 목표 없이는 증거를 찾으려 들지 않을 것이고, 증거를 피할 이유도 없다. 비도구론자도 이 과정에 관여하는 합리성이 도구적 이성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두 번째 단계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켈리와 같은 비도구론자는 믿음 형성 자체가 인식적 합리성 덕분이라고 주장하지만, 도구론자는 믿음 형성을 결정하는 과정이 인과적·심리적이거나 아니면 도구적이라고 주장한다. 만일 증거가 주어지면 무의식적으로 혹은 거의 자동으로 믿음을 산출하게 되는 경우라면, 그 과정은 인과적이고 심리학적이다. 그럴 경우 그것은 당연한 목표와 관련성이 긴밀하지 않다. 그러나 증거를 가진 상태에서 믿음을 형성할 수도 있고 형성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라면, 믿음 형성을 결정하는 과정은 목표에 의존하는 도구적 이성에 따른다. 예를 들어, 지각적 믿음의 경우는 인과적으로 믿음 형성이 결정되지만, 추상적인 과학이론은 규칙 도구론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믿음과 증거는 인식적이고 증거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인식 합리성의 모든 부분을 도구론적으로 환원하려는 시도가 실패함을 보여준다. 일단 증거가 주어지고 믿음이 생성되면, 그리고 우리가 둘의 관계를 평가하려 할 때면, 언제나 인식적 관계가 무대로 복귀한다. 아무리 밀어내려고 해도, 그것의 지위는 좀처럼 위협받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¹²⁾ 이런 결론이 규범적 자연

12)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믿음의 합리성의 영역에서도 도구적 합리성의 역할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증거의 수집, 모색, 제공과 관련된 합리성이다. 목표에 대한 도구적 이유 없이는 증거 수집과 채택은 효율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고 발견의 맥락과 정당화의 맥락 사이의 구분이 흐려지고 있는 포스트 실증주의적 상황

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귀결이 규범적 자연주의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또한 그 인식 합리성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연화된 방법론의 규범성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해줄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나는 순수하게 도구적 관점이 요구된다는 라우든이 주장이 규범적 자연주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가정이 아니며, 귀납 정도의 ‘선택적인’(?) 인식 합리성의 개입은 자연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6. 규범적 자연주의의 수정과 명료화

살펴본 바와 같이, 증거의 제공이나 모색이 목표에 관련하여 도구적일 수 있음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라우든의 대응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비도구론이 옳다면, 그 다음 문제는 과연 그러한 인식 합리성의 영역이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그 정체는 무엇인지 답하는 일이다. 바로 이 대목은 시걸을 비롯한 비판자들이 명료하게 말하지 않은 부분이다.¹³⁾

우선, “어떤 방법론적 규칙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를 실현해줄 것으로 믿을 근거를 가지는 한, 그런 방법을 따라 행위하는 것은 합

에서, 인식 합리성의 영역에서 도구적 이유는 무시될 수 없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는 시걸의 비판과 대조적이다. 시걸은 행위의 합리성을 대표하는 도구적 합리성의 영역에서도 인식 합리성의 독자적 영역이 있다고 보았는데, 이 절의 분석은 믿음의 합리성을 대표하는 인식 합리성의 영역에서도 도구적 합리성의 역할이 있음을 보여준다.

- 13) 이러한 전략은, 순수한 도구주의자에게 인식 합리성의 부분적 개입만으로도 치명적인데, 이 문제를 정도의 문제로 전환함으로써 문제를 너무 쉽게 피해가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물론 순수한 도구주의를 지향하는 라우든에게 이러한 물리성은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주장은 이 절에서 명료화한 규범적 자연주의를 성취하기 위해 순수한 도구주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오히려, 가부(whether)의 문제를 정도(degree)의 문제로 전환하는 것이 상황을 보다 세밀하게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리적”이라는 진술을 분석하면서 시작해보자. 이 진술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반적인 도구적 합리성에 관한 논의뿐만 아니라, 방법론의 자연화가 수행되는 핵심적인 면모까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위의 진술을 세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보자.

<표 1> 시결의 분석

- (1) 효과적인(효과적이라고 믿을 근거를 가진) 방법이나 절차를 따라 행위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 (2) 나는 방법 M이 목표 G를 실현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정당하게) 믿는다.
- (3) 방법 M을 따르는 것이 목표 G를 실현했던 증거들이 존재한다.

위의 추론 과정을 한 단계씩 밟아 가보자. 먼저, 만일 (2)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1)에서 진술된 도구적 합리성의 정의에 의해서 그 방법을 따르는 행위는 합리적인 것이 된다. 여기에 우리가 “합리적인 행위를 수행하라는 규범은 정당하다”는 일반 원리를 전제한다면, “목표 G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방법 M을 택하라”는 방법론적 규칙은 타당하게 된다. “효과적”인 것은 (도구적으로) 합리적인 것을 보증하고, “합리적”인 것은 “해야 한다”는 규범적 주장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2)의 효율성에 대한 믿음을 통해 방법론적 규칙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는 매우 자연스럽다. 남은 문제는 어떻게 (3)의 증거들에 의해서 (2)의 주장이 정당화되는가에 있다. 바로 이 대목이 목표/수단 분석으로 포착되지 않는 인식 합리성이 개념이 요청된다고 시결이 지목한 곳이다. (3)의 증거들은 과거와 현재에 방법 M이 목표 G를 실현했던 사례들의 집합이지만, (2)의 믿음은 G에 대한 M의 도구적 효능에 대한 믿음이다. 그래서 증거들을 통해 두 번째 단계로 추론하는 것은 경험적 일반화에 해당하는 귀납 추론으로 보인다. 즉, 방법 M이 목표 G에 대해 효과적이라는 믿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

는, (3)의 증거들에 의한 귀납적 지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은 두 가지 귀결을 갖는다. 하나는 방법론을 자연화하는 과정에는 목표/수단 분석들뿐만 아니라 인식 합리성도 필요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방법론의 자연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귀납이라는 방법에 대한 정당화가 요청되는 것을 보인다는 것이다. 역사적 사례를 통해 볼 때 M이라는 방법이 G라는 목표를 성취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면, 내일도 M이라는 방법을 따라서 탐구해야 한다고 강제할 수 있는가? 이런 물음에 직면하여, 라우든은 다음의 규칙을 주춧돌 삼아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R1] 만일 과거에 특별한 종류의 행위 m 이 어떤 인지적 목표 e 를 일관되게 증진시켰다면, 그리고 경쟁하는 행위 n 은 목표 증진에 실패했다면, “만일 당신의 목적이 e 라면, 당신은 m 을 해야한다”라는 규칙을 따르는 미래의 행위는 “당신의 목적이 e 라면, 당신은 n 을 해야한다”는 규칙에 기초한 행위보다 그 목적을 증진할 가망이 큰 것으로 가정하라(Laudan, 1987a: 25-26).

규칙 (R1)은 과거의 성공을 미래로 투사하는 일종의 귀납 규칙이다. 미래에도 여전히 행위 m 이 목표 e 를 증진한다고 정당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런 행위 m 은 합리적인 것이고, m 을 하라는 규범은 정당한 것이 된다. 우리가 (R1)에 동의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삼아 과학자들에게 방법 선택에 대한 “정당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R1)의 지위가 문제시될 수 있다. (R1) 자체는 도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것을 도구적으로 정당화하려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이 정당한 규칙이 되기 위해 참조해야하는 토대는 바로 (R1) 자신이다. 즉, (R1)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곧 순환에 빠진다. 하지만 라우든은 “귀납의 실용적 정당화”를 옹호하면서, 단순한 귀납의 방법을 사용하여 더 미묘하고 복잡한 평가 규칙들에 “부트스트랩(bootstrap)”하고, 그 평가 규칙들은 다시 고도로 정제된 규칙들과 표준들을 위한 보증수표가 되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Laudan, 1990a: 58).

<표 2> 필자의 새로운 분석

- (1a) 목표를 실현해줄 방법이나 절차를 따라 행위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 (2a) 나는 “다음번 탐구에서도 방법 M이 목표 G를 실현할 것”으로 (정당하게) 믿는다.
- (2b) 나는 “M이 G에 대해 역사적으로 효과적이었다”고 믿는다.
- (3) 방법 M을 따르는 것이 목표 G를 실현했던 증거들이 존재한다.
- ※ 추론 과정 : (3) $\cdots$ $\{(2b) \ \& \ (2a)\} \rightarrow (1a) \rightarrow$ 규범성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가?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증거에 의한 효율성 믿음의 입증도 문제이고, 두 번째는 귀납의 철학적 정당화 문제이다. 이를 귀납에 대한 입증도 문제와 정당화 문제라고 부르자. 먼저 나는 규범적 자연주의를 재구성함으로써 입증도 문제에 대해 해결을 도모하고, 이후 정당화 문제에 대한 견해를 간략하게 밝힐 것이다. 이제, 나는 방법론적 규칙의 도구적 합리성에 대한 진술을 다음과 같이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

(2)의 믿음은 앞서 지적한 대로 귀납의 정당화라는 문제를 안고 있고, 게다가 보편진술에 대한 믿음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는 규범적 자연주의가 반드시 (2)를 필요조건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2a)와 (2b)를 통해서 자연화된 방법론이 규범성을 가지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직면한 귀납의 문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2)가 목표 G에 대한 방법 M의 도구적 효능을 사실적으로 입증해야할 부담이 있다면, (2a)의 경우 부담이 매우 덜 하다.¹⁴⁾ 이것은 마치 카르납의 귀납 논리에 대한 견해와 유사한 면이

14) 라우든도 이런 수정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our methodological rules represent our *best guesses* about how to put questions and about how to evaluate nature's responses”(Laudan, 1989: 374). 어떤 것에 대한 최선의 추측이란 어떤 보편진술을 말하기 보다는, 다음번 탐구 전략에서 유용한 방법론을 지시하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관찰해온 까마귀들이 검었다는 증거들로부터, “모든 까마귀는 검다”는 주장을 정당화하기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다음번에 관찰하게 될 까마귀는 검을 것”이라는 주장은 높은 정도로 지지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방법 M을 통해 목표 G를 실현하거나 그것에 가까워진 증거들로부터, 우리가 “방법 M은 목표 G에 대해 도구적으로 효과적”이라는 보편적인 진술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울지라도, “다음번 탐구에서도 방법 M을 따라 탐구를 수행하면 목표 G를 실현할 것”으로 믿는 것은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과거의 증거들을 종합해내고 이를 미래로 투사하는 행위자의 판단에 (2b)가 개재될 수 있다. 행위자는 과거의 증거들을 단순히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종합함으로써 “아! M이 효과적이었군”하고는, “그러면 다음번에도 효과가 있겠군”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⁵⁾

(3)에서 (2b)로의 추론은 (3)의 개별 증거들을 연접으로 묶어내는 논리적 과정에 준한 것이 될 것이다. 실제로 효율성을 정량화해서 표현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특정한 맥락에서 요구되는 효율성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면 (2b)로의 추론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어떤 선험적인 인식 합리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단지 개별 사실들을 종합하고 효율성 주장을 판단하면 된다. (2a)로

15) 나는 귀납의 문제에 대해 카르납 식의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카르납의 귀납 논리에는 소극적이고 약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물론 과학 이론에 대해서 카르납 식의 귀납 논리를 통한 해명은 다소 약해 보인다. 보편진술의 형태를 띠는 법칙이 있다면, 그 법칙이 다음번 관찰의 경우에만 높은 정도로 지지된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불만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과학적 탐구의 방법은 상황이 다르다. 보편적으로 성립하는 방법론적 주장을 정당화하기란 사실상 매우 어렵고, 그 대신 탐구 방법이나 전략에 대한 합리적 내기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귀납 논리만으로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법론적 규칙들을 제거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는 일단 이 정도에서 만족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일반적인 귀납의 문제에서 카르납보다 더 적극적인 주장, 즉 보편진술에 대한 귀납적 지지가 가능한 체계를 구성하려는 노력(Hintikka, Kuipers)이 있음을 고려할 때, 더 대담한 주장이 가능한지 검토해볼 만하다.

진행되는 과정은 일종의 귀납 추론이지만, 시결의 분석에 의한 것보다는 훨씬 부담이 덜 하다. 그리고 이 단계까지 동의할 수 있다면, (2a)에서 (1a)를 발판으로 “당신의 인지적 목표가 G라면, 방법 M을 사용하라”는 방법론적 규칙의 정당성과 규범성을 확보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¹⁶⁾ 이상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면, 입증도 문제는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철학적 정당화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문제는 어떤 회의적 상대주의자가 (R1)의 정당성을 다시금 문제삼는 경우이다. 완화된 귀납의 규칙조차도 회의하는 자가 있다면? 이런 의심과 더불어, 방법론의 전면적인 변화를 허용하는 라우든의 전략은 상대주의에 대응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Worrall, 1988; 1989). 라우든이 대결하는 상대주의의 도전은 방법론의 가변성에 있

16) 물론 앞의 분석은 다소 단순화되어 있다. 과학 활동을 목표, 방법, 이론 그리고 다양한 환경과 맥락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한다면, 목표와 방법의 2자적 관계 설정은 지나치게 단순한 것일 수 있다. 첫째, 목표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험적·수학적 도구와 사회적 지원 등의 가용한 밀천이 크게 다르다면, 선호되는 방법론은 달라질 수 있다. 그리하여 방법의 선택은 단지 목표의 함수가 아니라, 목표와 이론 그리고 가용한 자원 등의 맥락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함수이다. 물론 방법의 선택은 일차적으로 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당대에 통용되는 이론과 실천, 그리고 역사적 맥락의 제약을 받는다. 둘째, 다른 환경이 유사하더라도 목표(G)가 약간 변화된 경우(G')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목표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유사하기 때문에, G를 효과적으로 실현했던 M을 G'에 대담하게 적용해볼 필요는 있다. 물론 이것은 동일한 목표 G에 대해 가지는 규범적 힘보다는 약하겠지만, 추구해볼 만한 방법론적 전략을 제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 목표나 맥락 등이 완전히 고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목표의 변화 속도는 방법이나 이론에 비하여 안정되고 느리지만(조인래 1998), 역사적 맥락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 “동일한 경우에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라”는 규범은 강한 강제력을 가지지만, 실제적인 적용의 범위는 좁다. 대신 “유사한 경우에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라”는 규범은 강제하는 힘이 다소 약화되겠지만, 보다 다양한 사례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고려사항들을 염두에 둔다면, 앞의 다소 단순화된 분석은 핵심적인 내용의 큰 손실이 없이 현실세계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적용 가능한 형태로 변형될 수 있을 것이다.

지 않고 방법론의 정당성에 있다. 그래서 도전에 대응하는 길은 “어떻게 방법론적 원리나 인식적 원리들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럴 수 있다면 비록 과학의 방법이 변화해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현재의 과학의 방법에 대한 정당화를 제공할 수 있다”(Laudan, 1989: 369-70). 그런데 워렐(Worrall, 1989)은 라우든이 정의한 상대주의는 정당화의 무한퇴행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⁷⁾

규범적 자연주의는 방법론을 그것의 정당성과 관련지어 생각함으로써 세워진 이론이다. 여기서 엄두에 두어야 할 것은, 라우든이 말하는 정당성은 상대적인 비교에 의해서 획득된다는 점이다. 즉, 어떤 한 방법이 현존하는 다른 방법들보다 합리적으로 선호될 만할 때, 그 방법은 정당성을 획득한다. 이는 인식정당성의 기준을 낮추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연주의라는 이름에 걸맞은 것이기도 하다. 가장 간단한 귀납 규칙에도 정당성을 요구하는 회의론자에게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

규범적 자연주의가 (R1)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태도는 가장 단순한 귀납 규칙을 “잠정적으로” 승인하는 것이다. 극단적 회의론자의 반복적인 정당화 요구에 대해, 우리는 되물을 수 있다. 왜 그런 정당화의 요구에 응해야하는가? 과연 그런 정당화의 요구가 성취될 수 있는 종류의 것인가? 사실상, 우리는 경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과 관련된 임의의 인식적 목표와 가치에 대하여, (R1)보다 더 선호할만한 대안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연역논리만으로는 ‘경험에서 배우’이라는 것이 어떻게 획득될 수 있는지 말하기 어렵다. 어떤 종류의 귀납이든지 간에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경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이 난센스(nonsense)가 되어버린

17) “거기[상대주의]에는 정당화의 잠재적인 무한퇴행이 존재하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회의론적 상대주의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입장을 고집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그 밖에 어떤 방법으로 회의론적 상대주의자가 주어진 정당화에 정당화를 계속 요구함으로써 퇴행시키려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Worrall, 1989: 381)

다. 적절한 경험과 증거들로부터 귀납 추론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본다면, 우리의 인식적 가치를 달성하는데(사실상 생존을 위한 모든 활동에서) 무엇이 더 유리했는지는 분명해 보인다. 더 나아가, 귀납을 사용하는 생명체와 그렇지 못한 생명체 중에서 어떤 것이 생존에 더 유리했는지도 분명하다. 귀납을 충실히 활용한 러셀의 칠면조가 추수감사절에 식탁에 올려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귀납을 애초에 사용하지 않는 칠면조는 추수감사절까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 뻔하다. 그러므로 규범적 자연주의가 가정하는 정당화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가장 간단한 귀납 규칙은 합리적으로 선호될 만하다. 그렇다고 해서 귀납 규칙이 도구적으로 정당화된 것은 결코 아니다. 귀납 규칙에 대한 승인은 여전히 잠정적이며, 그것의 정당화 요구에 응할 때면 다시금 귀납에 대한 참조로 이어지는 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점이 귀납이 경험적 영역을 넘어선다는 한 가지 의미이다. 이와 같은 분석이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라면, 정당화의 무한퇴행으로 인해서 라우든이 상대주의에 빠진다는 비판이 적절치 않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¹⁸⁾

7. 도구적 합리성 논쟁의 함의

논의를 시작했던 이유로 돌아가 보자. 방법론적 규칙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에는 단지 도구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포착되지 않는 인식 합리성의 영역이 있는가? 그리고 그 정체는 무엇인가?

필자의 새로운 분석은 언뜻 입증 관계로 보이지만 실은 다양한 차원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다음을 주목하라. 첫째, 역사적 사례로부터 판단하는 효율성의 내용이 투명하지 않다. 선험적으로 마련된 효율성

18) 귀납의 철학적 정당화 문제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이 글의 범위를 넘는다. 자연주의자에게 귀납의 지위가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것, 그러한 귀납이 인식 합리성을 핵심적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그것을 넘어선 선험적 합리성의 영역이 매우 크게 존재한다는 생각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의 기준에 비추어 독자적인 방법론의 효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만족스러운 효율성의 기준은 인지적 가치, 이론 등 다양한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맥락 하에서 행위자는 알려진 증거를 바탕으로 경쟁하는 방법들 중에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는 극대화 전략보다는, 제한된 자원과 능력을 가진 행위자가 상대적으로 만족스럽고 보다 효과적인 선택지를 고른다는 점에서 만족화 전략에 가깝다. 둘째, (2a)로 추론하는 것이 일종의 귀납 규칙에 따른 것이지만, 다음 번 탐구 전략에 국한된 귀납이다. 즉, 증거로부터 한 방법론을 입증하는 차원이 아니라 다음번 탐구 전략에 대한 최선의 추측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종합해볼 때, 시결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그가 비도구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대목은 다소 모호하고 과장된 것이다. 그가 인식적 합리성이 요구된다고 지목했던 지점은, 실상 개별 사실들의 종합과 맥락을 고려한 효율성 판단, 그리고 미래의 한 사건으로의 귀납이라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문제들이 목표/수단의 틀에 꼭 들어맞는 것도 아니지만, 어떤 선택적인 의미의 인식 정당성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러한 상황이 규범적 자연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차례이다. 과연 그것이 규범적 자연주의의 성립 자체를 위협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자. 그리고 자연화된 방법론의 규범성과 자연주의적 성격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해줄 수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규범적 자연주의가 진정으로 자연주의적인지 살펴보자. 시결은 인식 합리성의 존재를 근거로, 합리성에 대한 비자연주의적인 개념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성급한 결론이다. 도구적 합리성의 개념은, 목표와 수단의 연결을 정당하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인식 합리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¹⁹⁾

19) 순수하게 목표와 수단의 관계로서 포착되는 합리성을 좁은 의미의 도구적 합리성이라고 한다면, 목표에 대해 그 수단이 효율적이라는 믿음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는 합리성을 넓은 의미의 도구적 합리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우든은 좋은 이유는 전적으로 도구적 이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앞의 분석에서 그런 가정은 사용되지도 필요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순수하게 도구적인 관점을 넘어선 무엇이 깊숙이 개재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이 방법론의 자연화 기획이 손상시키지 않는다. 그것은 충분히 자연주의적이다. 왜 그런가? 방법론이 얼마나 자연주의적인가 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과학적 탐구에 의존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래서 선형적으로 결정되는 합리성의 영역이 있다면, “자연주의적” 성격이 퇴색하는 것이 아닌지에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화가 단지 좁은 의미의 경험화가 아니라 과학과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것이라면²⁰⁾, 간단한 귀납 규칙을 주춧돌로 삼는 것이 자연주의적 성격을 퇴색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도구적 합리성을 과학적 방법에 적용하여 자연화하는 기획 자체는 여전히 추구될만한 것이다.

넓은 의미의 도구적 합리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베이즈적(Bayesian) 선택이론을 고려해보자. 이 이론이 넓은 의미의 도구적 합리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합리적 행위자라면 베이즈 정리를 따라야함을 전제한다. 물론 그 규범은 선형적인 것이고, 목표와 수단의 관계에 의해서 포착되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도구적 합리성의 전형이라고 할만한 베이즈적 선택이론에서의 효용극대화 전략에서도, 그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도구적인 영역에 대한 주장을 전제해야한

20) 방법론의 자연화는 자연주의적 메타방법론이 과학과 연속적이라는 것을 말한다. 즉, 자연화는 좁은 의미의 경험화가 아니다. 과학이론과 연속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방법론적 규칙은 과학이론이 평가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된다는 의미에서 규범적 자연주의는 과학이론과 연속적이다. 방법론적 규칙에 대한 평가는 과학이론을 평가하는 방법, 예컨대 귀납적 지지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둘째, 자연화된 인식론에서 인식 규범이 우리의 인지체계에 대한 사실적 탐구의 결과에 의해서 제약된다고 보는 것과 같이, 자연화된 방법론에서도 방법론적 규칙은 과학이론과 사실적 정보들에 의해서 제한된다. 위약효과의 발견 이후, 의학에서 단일맹검법보다 이중맹검법을 선호하게 된 것이 한 사례이다. 이런 두 가지 의미에서 규범적 자연주의는 과학과 연속적이다.

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베이즈적 선택이론이 도구적 합리성 밖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귀납적 지지나 귀납 규칙을 전제함으로써 비도구적 합리성의 영역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이 글의 논의가 도구적 합리성을 넘어선다고 비판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다.²¹⁾

다음으로, 규범적 자연주의가 말하는 규범성에 대해 살펴보자. 자연화된 방법론의 규범성이 탐구 방법에 대한 “정당한 조언”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혹자는 그런 규범성이 어디에서 나오고, 그 정체는 무엇인지 궁금했을 것이다. 방법론의 규범성은 도구적 합리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 정체가 밝혀졌다. (도구적) 규범성의 근거는 합리성이고, 합리성의 바탕은 바로 도구적 효율성이다. 규범적 힘의 강도는 어떤 방법이 가지는 목표 실현의 효율성의 정도에 의존하는 것이며,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바로 자연주의의 핵심이다. 그러한 규범성이 선험적인 인식적 원리로부터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라도 수정되고 폐기될 수 있지만, 오히려 자연주의적인 규범성이란 유연한 연구 전략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옹호될 만하다. 우리는 넓은 의미의 도구적 합리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모순처럼 보이는 규범성과 자연주의가 사실은 목표 실현의 효율성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21) 귀납 규칙만이 인식 합리성의 영역에 있다고 해서, 어떻게 그 영역이 넓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귀납에 대한 논의는 논리실증주의에서 핵심적인 문제이고, 귀납 규칙이나 귀납적 지지에 대한 다양한 기법들이 이미 다양하게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옳은 지적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논의의 배경은 과학 활동의 무수한 방법론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정당성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식 합리성을 귀납에 국한시키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기존의 논자들의 경우, 단지 귀납적 지지에서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다. 규범적 자연주의는 다음과 같은 수많은 방법론적 규칙들을 비-선험적인 것으로 만든다: “반증가능한 이론들만을 제안하라”, “임시방편적인 수정을 피하라”, “단지 알려진 사실만을 설명하는 이론보다는 놀라운 예측력을 가진 이론을 선호하라”, “관찰불가능한 존재자를 가정하는 이론들을 피하라”, “비일관적인 이론들을 거부하라”, “복잡한 이론보다는 단순한 이론을 선호하라”, “선행이론의 모든 성공을 설명할 수 있을 경우에만 새로운 이론을 수용하라.” 이런 규칙들은 목표와의 연계 속에서만 정당성을 얻는다.

것임을 보았다. 이제 규범적 자연주의가 형용모순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8. 결론을 대신하여

나는 방법론과 인식 규범을 자연화하는 규범적 자연주의를 분석하면서, 그것을 도구적 합리성과 관련지어 논의하고 그들의 관계를 탐구했다. 자연화된 방법론은 방법론적 규칙을 수단으로서 파악하고, 방법의 건전성을 목표 실현의 효율성에 의해 평가하기 때문에, 도구적 합리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라우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모든 좋은 이유가 도구적 이유일 필요는 없다. 적어도 귀납과 같은 종류의 비도구적 합리성이 도구적 합리성의 성립을 위해서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요구되는 인식 합리성의 영역이 그리 넓지 않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규범적 자연주의가 상당한 정도로 자연주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연화된 방법론의 규범성이 바로 목표 실현의 효율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였다.

이제, 규범적 자연주의가 그려내는 과학의 이미지와 관련된 두 가지 물음에 대해 대답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²²⁾ 첫 번째 문제는 대안적 방법의 문제이다. 귀납 규칙 (R1)을 메타방법론의 초석으로 받아들이고 과거의 성공적인 사례만을 증거로 삼는다면, 과학 활동이 매우 보수적이게 된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이런 지적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어제까지 목표 G를 위해서 방법 M₁이 무리없이 잘 작동해 주었는데, 새로운 방법 M₂를 갑자기 시도해본다는 것 자체가 비합리

22) 한 심사위원은 “형식적으로는 지나치게 길고 내용적으로는 지나치게 소략”한 결론이라고 지적했는데, 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논문의 초점이 도구적 합리성과의 연관성에 있고, 또한 지면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소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껏 논의를 따라온 독자가 자연스레 우려할 만한 부분을 간략하게 지적한 것이다. 다른 기회에 별도의 논의를 통해, 규범적 자연주의가 그리는 과학의 이미지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적인 것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과학이 실제로는 어느 정도 보수적인 활동이라는 점을 언급해야겠다. 하지만, 이것은 규범적 자연주의가 그리고 있는 과학의 모습이 아니다. 라우든은 이론의 평가와 관련하여 수용과 거부라는 한 가지 인식적 태도(cognitive stance)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용과 추구, 공시적 평가와 통시적 평가, 적합성과 진보성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Laudan, 1977; 1981). 나는 이것이 방법의 평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아직 수용할 만하지는 않지만 더 정교화하고 추구해볼 만한 연구 방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롭게 제안되는 연구 전략이나 방법인 경우에 그렇다. 처음에 약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기존의 만족스러웠던 방법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새로운 방법의 가망성(promise)은 그것을 추구할 만한 것으로 만들어준다. 그러므로 (R1) 자체가 대안적 방법론의 추구를 금지하는 명령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의문은 과연 과학이 규칙-따르기(rule-following)에 의한 활동인가 하는 점이다. 쿤은 패러다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범례를 강조하였고, 알고리즘적인 규칙의 적용 없이도 안정적인 패러다임의 유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론 선택은 그러한 규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호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가치들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쿤의 주장은 인간의 추론이 규칙에 기반해 있지 않고, 대개는 사례와 모형에 기초해서 추론한다는 인지과학의 발견들과 잘 어울린다. 그렇다면 과학 활동을 이론과 방법, 그리고 가치의 상호작용으로 파악하는 라우든의 틀 자체가 잘못된 과학의 이미지를 조장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다. 라우든도 규칙의 기계적 적용을 강조하지 않는다. 그는 목표에 의한 방법의 미결정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규칙이 사실상 명시적으로 표현된다고 주장한 것도 아니다. 암묵적인 규칙들도 있다.

라우든이 주장한 것은 필요한 경우 그것들도 명시적인 진술로 표현될 수 있으며, 특히 가언명령으로서 잘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쿤이 말하는 정상과학의 시기 동안, 규칙은 암묵적인 성격을

가지지 쉽다. 왜냐하면 방법론적 규칙들은 교과서와 교육현장 그리고 도제적 실습 등을 통해 과학자들에게 체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굳이 언어적 진술을 통해 규칙을 제시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규칙이 명시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되는 몇 가지 경우들이 있다. 두 가지만 들어보면, 첫째는 새로운 실험 방법이나 연구 전략을 도입해서 널리 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물론 모든 것을 언어적으로 전달할 수는 없지만, 실험 매뉴얼이나 숙달자의 언어적 지시사항 등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위기와 혁명의 시기에 규칙은 중요하게 부각된다. 하나의 규칙이 과학자 공동체에서 공유되지 못하고 다수의 방법론적 규칙들이 경쟁하는 상황이 되면, 규칙들을 가능하면 명료하게 제시하고 그것들을 비교하는 일이 중요해진다. 그러므로 방법론적 규칙들은 명시적인 상태와 암묵적인 상태를 오가며, 가치와 맥락에 의해 교정되기도 하고, 새로운 이론의 발견에 의해 급격히 교체되기도 하는 등 자기-수정적인 성격을 지닌다.

규범적 자연주의는 과학적 합리성의 도구적 성격을 부각시켰다. 그와 동시에 방법론적 규칙에 대한 경험적 탐구를 가능하게 했다. 이는 절대적인 인식 규범과 구별되는, 가변적이고 맥락의 제약을 받는 유연한 연구 전략을 가능하게 한다. 경험과 무관한 선험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을 거부하고, 경험적·가언적·국소적 규칙을 옹호함으로써, 과학적 합리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이는 과학 활동의 인지적·사회적 측면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과 결합함으로써 더욱 풍성한 결과를 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기현 (2004), 「이론적 합리성과 실천적 합리성」, 『철학사상』,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이좌용 (1998), 「결정이론의 논리와 도구적 합리성의 한계」, 『철학연구』42, 철학연구회.
- 장춘익 (2002), 「실천적 합리성은 목적 합리성과 다른 독자적 지위를 갖는가」, 『철학연구』, 철학연구회.
- 전영삼 (2000), 「카르납의 귀납 논리」, 『귀납논리와 과학철학』, 서울: 철학과현실사.
- 정상모 (1998), 「과학의 합리성: 논의를 위한 기초와 하나의 도식」, 『합리성의 철학적 이해』, 한국분석철학회 편, 서울: 철학과 현실사.
- 정준표 (2003), 「합리적 선택이론에 있어서 합리성의 개념」, 『대한정치학회보』 11집 2호.
- 조인래 (1998), 「과학적 합리성의 지위」, 『과학철학』1호, 한국과학철학회: 35-73.
- 천현득 (2006), 「규범적 자연주의에 대한 비판적 옹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홍병선 (1999), 「인식적 합리성의 가능 근거와 제약」, 『철학탐구』, 중앙철학연구소: 135-163.
- Giere, R. (1988), *Explaining Science: A Cognitive Approach*,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 _____(1989), "Scientific Rationality as Instrumental Rationality", *Studies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20: 377-384.
- Ginev, D. (1993), "Do We Need Fixed Methodological Principles?", *British Journal of Philosophy of Science* 44: 329-334.
- Hands, D. W. (1996), "Economics and Laudan's normative naturalism: bad news from instrumental rationality's front line", *Social epistemology* 10, no. 2: 137-152.
- Kelly, T. (2003), "Epistemic Rationality as Instrumental Rationality:

- A Critique",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vol. LXVI, no. 3: 612-640.
- Kuhn, T. S. (1970),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 Laudan, L. (1977), *Progress and its problems*, Berkeley, CA: Univ. California Press.
- _____(1981), "A Problem-Solving Approach of Scientific Progress", in *Scientific Revolution*, ed. I. Hancking, Oxford: Oxford Univ. Press; 144-155.
- _____(1984), *Science and Values*,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 _____(1986), "Methodology's Prospects", *PSA* 1986, vol. 2: 347-354.
- _____(1987), "Progress or Rationality? The Prospects for Normative Naturalism",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24: 19-31.
- _____(1989), "If It Ain't Broke, Don't Fix It", *British Journal of Philosophy of Science* 40: 369-375.
- _____(1990a), "Normative Naturalism", *Philosophy of Science* 57, pp. 44-59.
- _____(1990b), "Aim-less Epistemology?", *Studies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21: 315-322.
- _____(1996), *Beyond Positivism and Relativism: Theory, Method, and Evidence*,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 Leite, A. (2005), "Epistemic Instrumentalism and Reason for Belief: a reply to Tom Kelly's 'Epistemic Rationality as Instrumental Rationality: A Critique'",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forthcoming).
- Quine, W. V. O. (1969), "Epistemology Naturalized", *Ontological Relativity and Other Essays*, NY : Columbia Univ. Press.
- Resnik, D. B. (1993), "Do Scientific Aims Justify Methodological Rules?", *Erkenntnis* 38: 223-232.

- Sankey, Howard (1996), "Normative Naturalism and the Challenge of Relativism: Laudan versus Worrall on the Justification of Methodological Principles", *International Studies in the Philosophy of Science* 10: 37-51.
- Siegel, H. (1989), "Philosophy of Science Naturalized? Some problems with Giere's Naturalism", *Studies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20: 365-375.
- _____(1990), "Laudan's Normative Naturalism", *Studies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21: 295-313.
- _____(1996), "Instrumental Rationality and Naturalized Philosophy of Science", *Philosophy of Science* 63: S116-124
- Worrall, John (1988), "The Value of a Fixed Methodology", *British Journal of Philosophy of Science* 39: 263-275.
- _____(1989), "Fix it and be Damned: A Reply to Laudan", *British Journal of Philosophy of Science* 40: 376-388.